토요저널
www.toyonnet.co.kr

(2026년 9월 22일 화요일 6면)

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을 철회하십시오



김서윤 의원
(풍납1·2동, 잠실4·6동)

본 의원은 오늘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과 관련해 인사검증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

2026년도 송파구 예산서상 시설관리공단에 투입되는 경상·자본전출금은 총 261억6,733만3천 원입니다.

이처럼 많은 구 예산이 투입되는 지방공기업의 이사장인 만큼 전문성과 책임감, 도덕성, 조직관리 능력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합니다.

이번 공개모집에는 3명이 지원해 서류와 면접심사가 진행됐습니다. 그러나 본 의원이 심사자료와 채점표를 요구한 데 대해 공단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

또한 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사장의 임용일은 8월 1일이며, 실제 첫 출근과 업무 인계인수는 8월 14일 이뤄졌습니다.

본 의원은 공단 임원 인사검증 절차를 면밀히 살펴보고,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인사 운영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.